김진경 의장 "제11대 경기도의회, 책임과 성찰로 마무리할 전환점"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여는 첫 회기인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2월 3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의됐다.

이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해 첫 회기는 과거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라며 "올해는 제11대 경기도의회가 그간의 여정을 갈무리하는 해로, 출발과 마무리가 함께 놓인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가 달려온 4년의 길이 다음 의회의 든든한 초석이 되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책임의 무게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며 "지난 3년 반 동안 '일하는 의회, 책임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차근차근 다져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직 완성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스스로 세우기 위한 방향만큼은 분명히 남겼다"며 "이 성과들이 다음 의회로 이어져 멈추지 않고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남은 임기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장은 최근 의회 소속 직원의 안타까운 사망과 관련해 깊은 성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조직의 책임을 묻는 뼈아픈 질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혼자 버텨야 하는 조직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고 함께 보호하는 의회가 되도록 필요한 기준과 장치를 분명히 세우겠다"며 "이러한 체계가 제12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한 올 상반기 예정된 지방선거 일정을 언급하며 "여러 현안과 일정이 앞서 있더라도 의정의 연속성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임기 초 다짐했던 도민 중심의 소신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집행부를 향해서도 "변화의 시기일수록 도정과 교육, 행정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의 안정은 도민에 대한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마무리되면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게 된다"며 "설 명절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힘을 얻는 따뜻한 회복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11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 여러분 모두 평안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더민주 최종현 대표의원 AI 정책수석 및 용인반도체클러스터TF 제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AI 정책수석 신설'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TF 구성'을 제안했다.

최 대표의원은 3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제안하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의원은 "AI 기술은 21세기 엘도라도라고 불리면서 세계 각국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총성없는 전쟁에 돌입하였다"면서 "AI 기술을 선점해야만 국가도, 기업도 생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가 AI 기술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경기도지사 직속의 'AI 정책수석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AI 정책수석은 단순한 직제 확대가 아니다.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산업 경쟁력과 혁신 가속화, 행정혁신 실현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면서 "AI 정책 수석을 통해 행정과 산업 전략을 연계하는 최종 퍼즐을 완성한다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지방정부로 우뚝 설 수 있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회, 경기도, 용인시, 기업,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TF 구성도 제안했다.

최 대표의원은 "TF 구성에 여야가 함께 참여하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여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주민이 TF에 참여하면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그러면서 민선 8기에 이어 민선 9기에도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했다.

최 대표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소통과 네트워크 부재로 교육현장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고 있다"면서 "무너진 교육 현장과의 소통 및 네트워크 채널을 복원하기 위해 대외협력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몇몇 측근과 보수교육단체에 휘둘리지 말고 교사노조, 시민·학부모 단체, 그리고 유관기관과 소통하고 협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도의회를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다수당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사과했다.

최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 내부 자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과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경기도의회가 자정과 쇄신으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송민수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세종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 청취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2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이어가며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와 학생건강센터의 이용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생정신과 신체 건강 확보를 위한 발전적인 정책의 준비를 요구했다. 또한 평생교육원, 세종교육원, 진로교육원에 대해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대상 연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래 지향 융합적 사고 및 신산업 관련 역량을 함양한 인재 양성을 위해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학생건강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생활, 학업, 의료 등의 복지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이 '학교-교육청-지역사회' 자원의 연결구조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상시 지원의 기초를 다져줄 것"을 당부하며 단단한 교육복지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김동빈 의원은 "읍면 지역 학교의 경우 학생 감소로 인해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꾸준한 특색교육과정 개발과 적용, 특기생 발굴, 학생 전출입 체계 개선을 통해 읍면 지역 학교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세종교육의 균형발전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란희 의원은 학생교복 관련 연구결과를 활용해 '교복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정적 지침 마련'을 강조했고, ▲교육청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교육기관의 사회 기여 ▲학교밖청소년의 치료형 교육기관 이용 지원 ▲관계회복 숙려기간 홍보 및 활용을 통한 학교폭력 치유 지원 ▲학교폭력 관련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연수 지속 실시 등 다각적인 교육 지원책을 제안했다.

유인호 의원은 교육청의 학생 통학로 안전계획과 연동, 호응이 가능한 학교 내 안전계획 수립 현황을 파악해달라고 요구하며 "학생 등교와 하교에 모두 빈틈없는 안전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새로 개원한 교육문화원 '학생문화기획단'의 역할을 정립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현장과 소통하며 세종교육 발전을 목표로 신규 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며, "지금처럼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세종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업무추진의 애로사항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겠다"고 감사와 당부를 전했다.

이채봉 기자

강남구의회, '2026 설맞이 직거래 장터' 방문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3일 오전 설 명절을 앞두고 강남구청 주차장에서 열린 '2026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방문했다.

행사에는 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김형대 의원·전인수 의원·이향숙 의원·한윤수 의원·윤석민 의원·황영각 의원·이성수 의원·김진경 의원·손민기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직거래장터 현장을 둘러보고, 직거래 장터를 방문한 구민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친선도시 홍보관을 운영하며 강남구와 우호 협력 관계를 맺은 ▲강원 양구군, ▲충북 증평군, ▲충남 당진시, ▲경북 영주시, ▲경북 칠곡군, ▲전북 군산시 등이 참여해 각 지역의 특산물과 대표 축제, 고향사랑기부제 등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이장성 기자

하남시의회, 병오년 제345회 임시회 개회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가 3일 올해 첫 회기인 제345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 의회에 따르면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건의안 등 상정된 19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의회는 하남시의 최대 현안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2건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금광연 의장이 대표 발의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지하철 9호선 연장) 미사 구간 우선 착공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금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3차례 유찰된 2공구(하남 망월~남양주 다산)의 공기 지연이 전체 사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며 "시공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수요가 폭발적인 서울 강동(943 정거장)과 하남 미사(944 정거장) 구간을 분리하여 우선 착공함으로써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극심한 교통난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훈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례신사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하남연장 촉구 건의안'도 의결됐다.

금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는 오직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며 "다가올 설 명절,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하고 훈훈한 연휴를 보내시길 기원한다"라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 임시회 36개 안건 처리 후 폐회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3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36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앞서 1월 20일부터 15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올해 집행부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으며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위원회'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특별위원회'도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며 현안 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올해 첫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각종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했다"며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집행부에서는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